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우창



우리를 모두 흥분하게 하는 것은 정치이다. 삶의 큰 테두리의 하나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이 나날이 사는 세계는 그 보다는 작은 세계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 세계가 평화롭고 편안한 것인지를 원한다.

50년 전 미국에서는 돈 없는 학생이 갈 곳이 있으면, 길가에 서서 손가락 하나로 차를 세워 그것을 얻어 타고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되어 그 것은 피차에 위험한 일이 되었다. 프랑스를 잘 아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들으니,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오토 스텁'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아직 작은 선의의 망(網)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회적 선의 또는 신뢰의 망이 있는 것일까? 한국은 정이 많은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정이 선의의 망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는 정치를 진하지는 않다. 인간 모두를 인간으로

보게 하는 보편성의 렌즈가 일반화되어야 보편적 선의가 생긴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 프랑스 혁명의 구호에 나오는 '유대'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선의는 마음의 다른 덕성에 연결

히 정직한 것이었다. 15 유로의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을 정직하게 그대로 보고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통계에 기초해서 추측한 것이다. 통계적 평균으로 머리와 고리는 각각 50%가 되는데, 보고 결과는, 상 받는 '포리'가 44%, 상 받지 못하는 '머리'가 56%였다.

오늘의 인간관계는 힘과 이익의 관계에 일치하는 수가 많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의 영수로 있을 때, 기자들에게 "나를 착한 사람으로 알지 마시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민주화 투

일상생활의 윤리감

된다. 선의는 타인을 믿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한 요소는 정직성이다. 정직성에 대한 독일 본 대학 노동연구소의 연구가 얼마 전 독일의 한 신문에 보도되었다. 약 700명의 학생을 전화로 접촉하여, 동전을 던져, 동전이 머리가 나왔는지 고리가 나왔는지를 알아 달라고 요청했다. 고리가 나왔다 면 상금으로 15 유로가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동전을 훈자 던지는 데, 어느 쪽이 나왔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고의 결과는 완전

정이 한창이던 때였으니까, 상황이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대체로 '착하다'하면 '어리석다'는 말에 비슷한 뜻을 가질 수 있다. 독일인은 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에도 착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 말한 기사의 제2줄은 "평에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바보인가?"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평에롭다'는 말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평에로운 독일인'이라는 것이다. 독일어에서 또 서

구어에서 '정직하다'는 '평에롭다'와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 우리가 한사코 얻고자 하는 명예는 국가나 사회 기관에서 주는 벼슬이나 훈장이나 증명서에서 생긴다. 서양 전통에서 명예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스스로 높은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정직은 도덕이나 윤리의 규범이면서 동시에 자존심의 일부이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거짓을 말해?' 하는 마음이 정직의 심리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의(道義)에 대한 느낌 이전 자기의 존재감에 관계된다. 낯선 사람에 대한 선의의 경우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의가 일상화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이다.

어떤 동기에서든 정직은 독일인의 당연한 행동규범이다. 독일은 국가적으로 부패인식지수라는 척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정치가 투명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정치가 투명하게 움직이면, 사람사는 세계가 맑아지고 끝 데 없는 의심과 경계와 계략이 후퇴한다. 그리고 선의는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매체가 된다. <이하에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남과 중복되는 인천 복합도시 철회하라

인천시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마카오 3배 크기의 초대형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합도시에는 세계 유명 관광도시들의 점집을 결합해 마리나, 게임·컨벤션, F1 자동차 경주와 한류, 테마파크, 의료, 고급 주거, 페스티벌, 미래 도시 등 8개 주제로 조성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F1 등 전남도의 핵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F1 대회를 치르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큰 부담인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레저 복합도시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과 영암·해남 관광재정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겹쳐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타지역이 선점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을 곧바로 따라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작금의 화두인 지역균형발전에 도 역행하는 일이다. 인천시는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전남 출신인 송영길 시장이 전남도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해치고 국익을 바비하는 지자체 간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과 차단에 나서야 한다.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주민 피해 외면한 어등산골프장 재고해야

어등산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 건설은 뒤로 미루고 골프장만 선(先) 개장하는데 따른 반대 여론이 커진 가운데 인근 주민과 이용객의 비난도 거셌다. 골프장 사업자가 주변 주민들의 피해나 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은 도와시한 채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F1 대회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인천에서 F1 경주장과 자동차 테마파크를 짓겠다면 전남도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쇼핑몰, 테마파크, 워터파크, 마리나 항 등도 여수박람회 활용 및 J프로젝트

농자질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클럽하우스까지의 진입로 끝까지 위험에 노출돼있고, 급경사에서 이용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겨울철 빙판이 떨 경우 사고위험이 높고, 도로 한쪽 옆의 절개지가 지표면과 거의 수직상태여서 낙석위험도 있는 실정이다. 광산시민단체 등이 사업자가 돈벌이에 급급해 공익을 저버리고 있다며 피해대책위와 협의해 강력 대처할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는 지역민, 시민단체의 이런 대응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등산사업은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이 목적이지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어등산CC에 따르면, 사업부지내에 조성된 어등산CC는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개장을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달 초순 개장을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영업에 따른 지간접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주 진출입로가 평소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상태로 개장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운전자들이 상습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농업용수 고갈과 농약 피해 등 민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골프장 잔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공급수호를 만들다보니 정작 농사용 물이 줄어 영

無等鼓

9시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발의 의원들은 "최근 5년동안 전국단위 선거 투표율은 50~60%에 불과하다"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100억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여권에 유리하고, 높으면 야권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듯하다.

하지만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상당수 유권자는 시간 제약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염려한 현실이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마땅히 나서야 할 일이 아닐까.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정일권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 '숙명'

증거 하지마라"고 기록돼 있을 정도다.

사람이 하는 거짓말 중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차치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거나 실제와는 다른 판단을 하게 하는 등 당사자에게 셋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그 '거짓말쟁이'가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이거나 목격자 없는 범행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은밀하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범행의 관련자(뇌물사건, 간통사건 등)라면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는 '거짓말쟁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들의 수많은 거짓말 중에 실제 진실을 단번에 가려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또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단언컨대 겸사라고 딱히 거짓말임을 쉽게 판명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겸사는 어떻게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는가, 그 비법은 바로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다. 즉,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은 다른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보면 때로는 일반인들의 평범적인 감각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건의 '진실'은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 때가 있다.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달려들면 이를 분별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겸사실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앉아 있는 양 당사자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단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매우 보람된 일일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이번에는 반드시 수많은 거짓말을 싸워야 하는 숙명이 있다. 때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사건이 떠나지 않아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다. 그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상당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난 신이 아니다. 상식에 맞게 판단하자.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하자"라고 스스로 다스려 본다. 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역시 인간이어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마련이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거짓말과 싸우는 숨결을 가진 겸사에게 있어 거짓을 가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두 눈을 가지고 저울과 칼을 들고 진실을 판단한다. 신이 아닌 필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실제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매일 겸사로서 수사하고, 처리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에 기초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건 당사자와 기록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볼 것을 다짐한다.

<광주검 특수부 검사>

기고



소기홍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자

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 잘 사는 길을 찾아 보자'는 뜻이다. 과거에는 서울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과 서로 힘을 합쳐 원원(win-win) 해 보자는 거다.

우리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로들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일이 잦았다. 옆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여 돈 좀 빙자하면서 바로 배끼서 그 일에 끌어들었다. 결국은 둘 다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이 많았다. 또 옆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우리 지역도 만들고 나섰으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영세하고 소박한 수준의 시설물을 지었다. 결국은 공동의 다음날부터 활용이 문제되고, 운영비는 두고두고 짐덩어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이런 지역간 경쟁, 과잉 투자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인근 지역들이 힘을 합쳐 공동 지원을 만들고, 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권을 이루며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이 같은 취지를 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해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함양·산청·하동·장수·남원·곡성·구례 등 지역 7개 시군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토론했다. 광양·순천·보성·남해·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5개 시군은 지역특산품 공동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끌어냈다.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

심적인 과제는 별도 예산 확보 문제였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지출한도 내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요란한 인센티브를 내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인 단독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협력 사업만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마침내 2013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국회에서 만만찮은 검토가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새로운 퀘드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집적인 과당 경쟁이나 과잉 투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 지자체 힘으로는 벅친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동 노력으로 지역 특화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늘어나리라 믿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대로, 지역들이 상생 내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알찬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수험생들 수능 시험 불편없게 감독교사들이 신경써야

전국의 60만 8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오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로서는 그간 닦아온 실력을 테스트하는 중대한 계기로 고사장이나 감독교사들은 수험생들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 수능시험에서 대형 부정사건이 터져 시험감독은 엄격히 규정대로 해야겠지만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편안하고 차분하게 치르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매년 수험생들의 입에서 불

편한 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시정 내지 개선 폐야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교사가 특정 수험생 옆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혹 감독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 수험생 근처에서 답을 제대로 쓰는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기 위해 한참 동안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놀랄 만큼 곤란하다.

셋째, 감독교사끼리 잠시라도 잡답을 나누는 일을 삼가야할 것이다.

간혹 지루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조 를 끊기더라도 그냥 웃으니 해야지 특정 수험생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리거나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둘째, 신